

고교수학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을 배운다.

y = 2x를 x로 미분하면 dy/dx = 20I다. 이 말은 x가 1 증가하면 y는 2배로 2 증가한다는 말이다.

그렇다면 y = 2x를 2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? 답은 dy/d(2x) = 10다. 즉, y와 2x의 변화속도가 같다는 말이다.

적분에 치환적분이 있듯이 미분에서도 2x를 하나의 새로운 변수 t로 놓고 생각해 보자. 그러면 y = t, t = 2x이므로 dt/dx = 20고, dy/dt = 10다. 즉, t의 변화량은 x의 2배이고 y의 변화량은 t와 같다는 말이다. 그렇다면 결국 y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의 2배라는 말이 된다.

 $\frac{dy}{dx} = \frac{dy}{d\underline{t}} \cdot \frac{d\underline{t}}{dx}$

즉, 처음부터 y를 x로 직접 미분하는 것 보다는 중간에 다리를 두어서 단계적으로 미분을 구하는 것이 합성함수 미분법이다. 예를 들어, $y = (2x + 1)^4$ 인 경우 $dy/dx = 4(2x + 1)^3 + 2 = 8(2x + 1)^3$ 이 된다.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위 합성함수 미분법 식에서, dt/dx의 dt는 dx에 종속된 값이고 이 dt에 종속되어 dy/dt에서의 dy가 결정된다는 점이다.